



블루베리



복분자



라즈베리



오디

농가소득 기대주...장성 '4色 베리' 본격 출하

웰빙식품 각광 복분자·오디·블루베리·라즈베리
생산농가·재배면적 늘어 제철 앞두고 수확 한창

붉고, 검고, 검붉고, 푸르고. 장성의 4색(色) 베리(Berry) 수확이 한창이다. 웰빙바람을 타고, 북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장성의 4색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정정한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복분자와 오디, 블루베리, 라즈베리(산딸기) 등 다양한 베리류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분자는 현재 1kg당 1만~1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성은 흙이 좋고, 일교차가 커 맛과 당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에서도 차별화된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해 전국에서 재배되는 나무를 확보해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20ha 규모의 복분자 신규 재배 면적을 확대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340 농가 155ha에서 복분자를 재배 하는데 44t을 생산하고, 36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 지난해 균핵병으로 몸살을 앓은 오디는 올해 작황이 좋다. 군에서 시도한 다양한 균핵병 방제 시험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현재 1kg당 8000~1만원에 판매 중이다.

오디도 농가 소득을 위한 효자 작물이 다. 장성군 194 농가 66ha에서 해마다 311t의 오디를 따 18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최고의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블루베리도 1kg당 2만~4만원에 출하되고 있다. 재배면적도 꾸준히 늘어 현재 52 농가 14ha에서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다.

새콤달콤한 특유의 향과 맛을 자랑하는 라즈베리도 제철을 맞아 18농가에서 출하를 시작했고, 1kg당 8000~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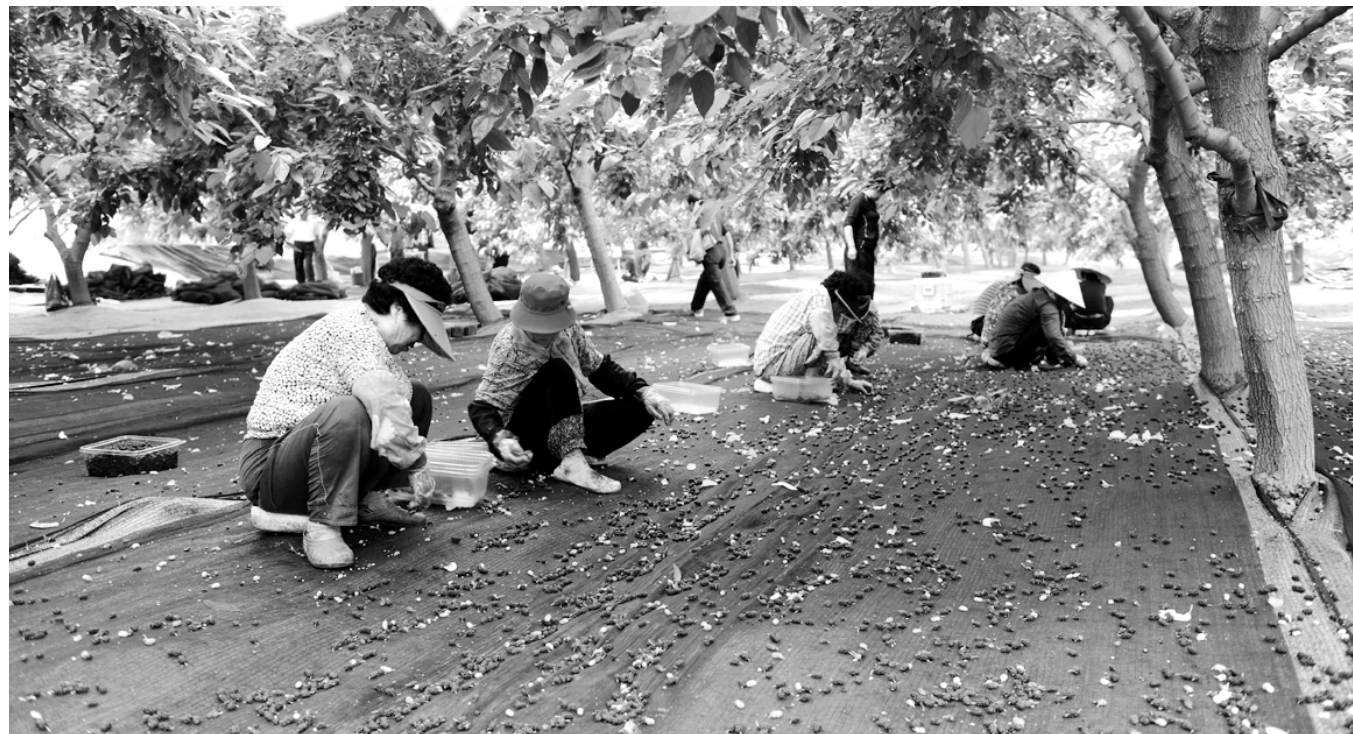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축산담당 채

꽃바래 씨는 "장성은 밤낮의 기온차가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고품질 베리를 생산하는 데 최적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들 작물의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061-390-8415).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축산담당 채

꽃바래 씨는 "장성은 밤낮의 기온차가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고품질 베리를 생산하는 데 최적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해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들 작물의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061-390-8415).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농민들이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수확하고 있다. 장성지역은 194 농가가 66ha에서 매년 311t의 오디를 수확해 18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장성군 제공>



무등산 동부사무소-화순 전남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소아암 어린이·가족 30명 초청 '건강 나누리 캠프'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박용규)와 화순 전남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최근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했다. <사진>

이번 캠프는 소아암에 관한 전문의의 교육와 상담을 비롯해 국립공원 숲에서 소아암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자연해설과 숲속 미션, 국립공원 캐릭터인 '꼬미'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부모는 "아이가 오늘만큼은 환자가 아닌 평범한 아이같이 기분이 좋았다. 의료진과 국립공원 직원이 함께 있어 야외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든든했다"고 말했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위중환 과장은 "환경성 질환에 고통받는 미래세대와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국립공원 자연체험을 제공하겠다"며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연과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행복한 국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 숲 힐링 명소 각광

둘레길 조성·휴양관 개관...편의시설 확충 관광객 북적

전국 최대 규모의 편백나무 숲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장성 축령산이 사계절 도시민이 즐겨찾는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축령산은 40~50년생 편백나무숲(779ha)이 울창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독립가 춘원 임종국 선생이 한국전쟁 이후 20여년간 나무들을 심고 가꿨으며, 지금은 전국 최대 조림 성공지로 손꼽힌다.

특히 이곳은 편백나무에서 내뿜는 천연 항균물질인 '피톤치드'(phytoncide)가 풍부하고 산림내 편백향이 진해 심신 안정은 물론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토양에 '지오스민'(geosmin) 성분이 풍부해 독특한 흙냄새를 풍겨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 김모(서울시) 씨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이곳을 찾게 됐다"며 "편백나무 숲길을 걸으니

세상만사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신선한 공기에 머리까지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군은 해마다 '산소축제'를 비롯한 '산소길 MTB전국대회', '축령산 걷기대회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축령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편백나무 숲을 감아 도는 도보여행 코스인 '축령산 둘레길'을 조성했으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축령산 인근에 유희품의 건물인 '대덕 휴양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걷기 여행길'(koreatrails.or.kr) 사이트를 통해 '장성 축령산 산소길' 2구간 (금곡 영화마을~금곡입구 삼거리~안내소~숲치유센터~추암마을~괴정마을·6.3km)을 6월 걷기 여행 코스 10곳 중 한곳으로 추천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길이 5m...화순서 '대물' 백하수오 발건

대형 백하수오(白何首烏)가 화순에서 발견돼 화제다.

화순군 남면 사수리 송정마을에 사는 이길동(58) 씨는 지난 7일 마을 뒷산에서 산일을 하던 중 백하수오 덩굴을 발견하고 5시간에 걸쳐 백하수오를 채취했다. 이씨가 발견한 백하수오의 길이는 약 5m에 이른다.

이씨는 "심마니들이나 한약사들은 야생에서 50여년 이상 자란 백하수오를 '대물'로 친다"며 "생전 처음 보는 크기의 하수오를 채취하고 신기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수오는 적색과 백색 두 종류가 있으며, 흰머리카락도 검게 만드는 등 항노화 효과가 뛰어난 한약재로 알려져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 조직위 워크숍

(재)담양 세계대나무 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박람회조직위)가 총괄대행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들어갔다.

박람회조직위는 최근 축향문화체험마을내 추성창의기념관에서 총괄대행업체인 ㈜이노션, (주)KBSN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박람회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상내용을 최종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담양 종합체육관과 추성 경기장에 대한 공간 활용 방안과 신인작가를 활용한 대나무 특화작품을 제작 전시하는 방안과 야간 개장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모색 등을 논의했다.

담양군은 내년 6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50일간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지리산 노블랜드

즉시입주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백운산 500고지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300만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	
28평(26실)	9800만원	40~50%정도	
56평(1실)	1억9600만원	대출가능	

지리산노블랜드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453

분양상담 061)783-6001 H. 010-2928-0202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주1회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